

tbs라디오 「서울속으로 황원찬입니다」 서울옛보기 (목) 11:15~11:25

e-서울통계로 보는 오늘의 숫자

I·SEOUL·U
서울통계
SEOUL STATISTICS

서울시민의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은?

2017. 10. 12(목)

정 보 기 획 관
(통계데이터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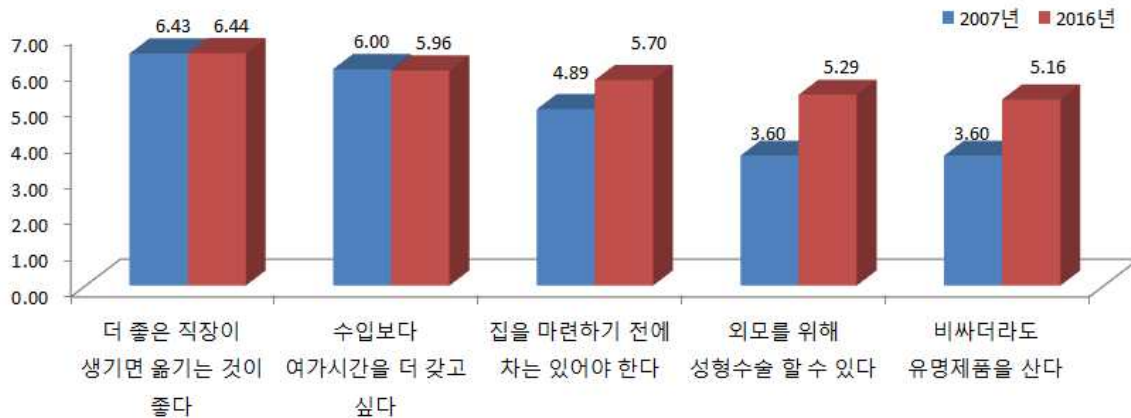
작 성 자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2133-4260 통계조사팀장 : 신욱재☎4284 담당 : 박창현☎4285

서울시민의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은?

- 자동차구매, 성형수술, 유명제품 등 소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두드러져
 - 최근 약 10년간 서울시민의 소비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함. ‘집을 마련하기 전에 차는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2007년에는 동의정도가 4.89점인데 반해, 2016년에는 5.70점으로 상승
 -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의 동의정도도 2007년 3.60점에서 2016년 5.29점으로 상승. ‘비싸더라도 유명제품을 산다’는 응답은 2007년 3.60점으로 2016년 5.16점으로 크게 상승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

(단위: 10점 만점)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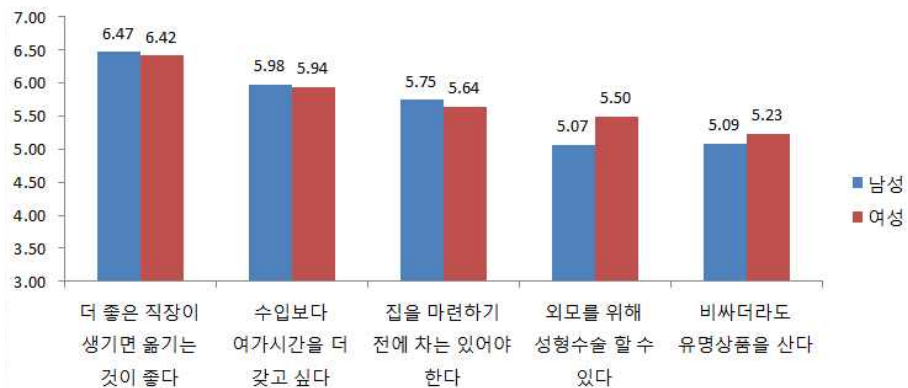
년도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옮기는 것이 좋다	수입보다 여가시간을 더 갖고 싶다	집을 마련하기 전에 차는 있어야 한다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 할 수 있다	비싸더라도 유명제품을 산다
2007년	6.43	6.00	4.89	3.60	3.60
2008년	6.25	5.72	5.06	4.26	4.19
2009년	6.26	5.72	5.25	4.40	4.43
2010년	6.14	6.00	5.61	4.69	4.85
2011년	6.19	5.90	5.58	4.73	4.76
2013년	6.41	5.92	5.61	5.22	5.11
2015년	6.42	5.95	5.68	5.26	5.11
2016년	6.44	5.96	5.70	5.29	5.16

○ 여성은 명품소비, 성형수술에 대해 남성보다 긍정적이며, 모든 문항에서 저연령층이 고연령층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

- 성별에 따른 소비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함. 여성(5.50점)은 성형수술에 대해 남성(5.07점)에 비해 개방적이며, 유명상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여성: 5.23점, 남성: 5.09점). 반대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집보다 자동차를 먼저 구매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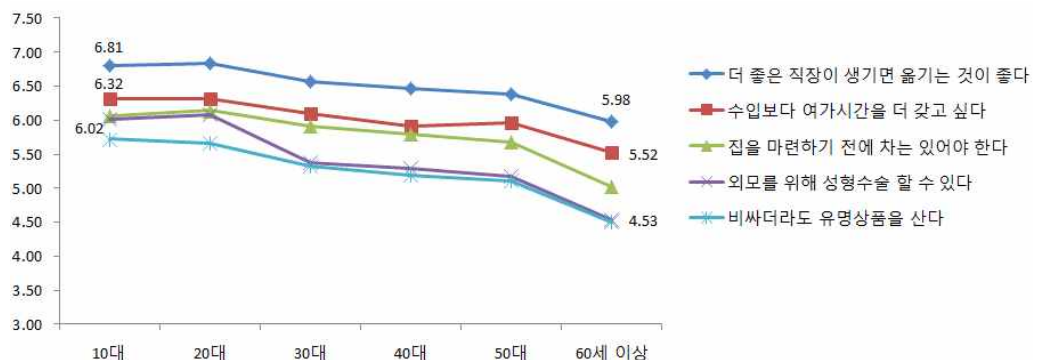
(단위: 10점 만점)



- 연령별 차이를 보면, 모든 문항에서 저연령층이 고연령층에 비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20대 이하의 저연령층은 일에 있어서 이직에 대한 망설임이 없고,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를 중시함. 그리고 집이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함.

〈연령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단위: 10점 만점)



〈성·연령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단위: 10점 만점)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옮기는 것이 좋다	수입보다 여가시간을 더 갖고 싶다	집을 마련하기 전에 차는 있어야 한다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 할 수 있다	비싸더라도 유명상품을 산다
전체		6.44	5.96	5.70	5.29	5.16
성	남성	6.47	5.98	5.75	5.07	5.09
	여성	6.42	5.94	5.64	5.50	5.23
연령	10대	6.81	6.32	6.07	6.02	5.72
	20대	6.84	6.31	6.14	6.08	5.66
	30대	6.57	6.10	5.92	5.38	5.33
	40대	6.46	5.92	5.79	5.29	5.19
	50대	6.38	5.97	5.68	5.18	5.11
	60세 이상	5.98	5.52	5.02	4.53	4.51

※ 자료출처 :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